



내일을 위한 생각!
이웃을 위한 생각!

함께하는 사회, 사람을 위한 기술!

나와 이웃이 사는 행복한 빛의 세상

한국전력기술이 설계합니다.



쉽의 窓



2021 07+08

KEPCO E&C Family



통권 464호 2021년 7,8월호(격월간)

발행인 김성암
발행일 2021년 7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인 쇄 동아인쇄(주)(054-433-4454)



나의 어머니 / 베르톨트 브레히트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땅 속에 묻었다.
꽃이 자라고, 나비가 그 위로 날아간다.
체중이 가벼운 그녀는 땅을 거의 누르지도 않았다.
그녀가 이처럼 가볍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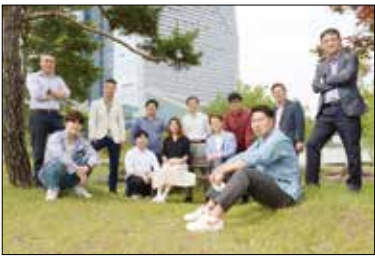
04 Sci-Tech I
최재봉교수 '팬데믹경제 시대, 열광하는 에너지 기술을 창조하라'

06 Sci-Tech II
사람처럼 말하는 AI

08 Brief News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항공·산업 분야 기술협력
한국도로공사와 스마트건설·디지털엔지니어링 기술협력
김천시 지역상생 협력 기부금 전달
한국남동발전과 감사역량 강화 및 반부패·청렴 공동협력 추진
신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및 1차 운영협의회 개최
아리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EPC 업무협약
2021년도 우수 혁신과제 포상
광역 청렴시민감사관 공동 토론회 개최
ITER 시운전사업 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윤리데이 맞이 비대면 청렴활동 전개

12 팀소개
품질안전처 품질보증팀

16 전시회 참가
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



18 생각하는 한기인
변화, 새로운 시작

20 속닥하게
오뎅(竹 - 肉)

22 직원사진 참여 마당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 우유니 소금사막 위에서

23 이 달의 한컷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4 추천 여행지
동남아의 스위스, 베트남 사파 고산지대
풍력발전과 푸르름이, 아름다운 제주도
내 맘속에 저장된, 베어트리파크 가을 나들이
헤밍웨이를 품은, 미국 최남단 키웨스트
한국의 매력을 가진, 안동 도산서원
자연이 주는 쉼, 필리핀 보라카이

30 Shall We Meet?
강동모 이발사의 비인부전



32 머니머니
ETF는 뭇탕이 주식

34 맛집 탐방
'그리고 돈가스를 먹었다'

36 술익는 마을 : 우리 술을 찾아갑니다
그윽한 술송주

38 Culture
영화 : 더 파더

40 세계의 문화
신의 축제, 발리 네피

42 외부기고
영원, 방아

44 유용한 앱
놓친 보험금 찾는 앱, 바로청구

46 사보기획 이야기
독자와의 수다

팬덤경제 시대, 열광하는 에너지 기술을 창조하라

지난 원고를 통해 디지털 문명이 표준인 뉴노멀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했고 지식공유 시대의 인재상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본다. 요약하면 기업은 소비자 팬덤을 만들어야 성공한다. 팬덤 크기가 곧 기업 가치이고 지속 성장 에너지이다.



요즘 최대 화두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다. 한전기술이 준비하는 미래도 ESG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기업은 이제 이익만 난다고 투자대상이 아니다. 환경 친화적 기업, 사회 기여 기업이 필요하고 조직 내부의 결속력이 탄탄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ESG 기준의 핵심은 소비자가 그 기업에 대한 팬덤을 갖느냐로 해석한다. 디지털 문명시대는 소비자가 권력을 갖는 팬덤 경제다. 소비자가 열광하는 기업이라야 성장 가능하다.

애플이나 테슬라는 포노 사피엔스의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등 모든 플랫폼 기업의 성공 비결은 방송광고가 아니라 소비자 입소문에 의한 자발적 팬덤이 결정적이었다. 세계 경제는 소비자 팬덤 기업들에 의해 좌우된다. 기술의존 기업도 '소비자 마음을 사는 기술'이라야 성공한다. 우리는 그동안 제조업 특성에 맞춰 숫자를 기준으로 스펙 중심의 R&D 전략을 추진해왔다. 삼성전자는 이런 전략으로 일본기업들을 제치고 탁월한 반도체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애플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술 없이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만큼 미래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다. 애플의 비결은 스티브 잡스가 밝힌대로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는 연설에서 이야기한다. "애플 제품은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는 휴머니티와 인문학을 기술에 결혼시켰다.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 심장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잡스는 고객감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자서전에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가져온 시제품을 내던지면서 끊임없이 집착했던 그의 집요함을 읽을 수 있다. 숫자로 스펙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적 느낌'이 제대로 올 때까지 끝을 보기 원했다. 그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좋아하는 직원도 없었다고 한다. 인간은 미묘한 존재다. 그 '미묘한 존재들의 심장이 노래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기준이다. 사람들은 애플 제품에 중독되었고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었다. 2021년 애플의 CEO 팀쿡은 중대발표를 선언했다. 모두가 애플카의 등장을 예상했는데 두껍을 열어보니 '인종차별 극복을 위한 평등과정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발표였다. 애플 사용자는 휴머니티를 간직하며 자랑스럽게 애플 패밀리로 남아달라는 메시지였다. 실제

고객 중 절대 애플을 떠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무려 92%에 이른다. 이어령 선생님이 이 시대를 공감 자본시대라고까지 표현했다. 휴머니티의 축적은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열쇠가 되었음을 애플이 증명하였다.

한국전력기술은 에너지 설계회사이다. 팬덤 경제시대라면 인류가 좋아할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어야 하고 탄소배출도 없어야 하며 미세먼지도 막아야 한다.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지만 이 미묘한 인간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보편적 인류가 좋아할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비판받던 원전이 최근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류의 미묘한 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글로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방사능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다. 실제 그 폐해가 커지자 마음이 움직였다. 태양광이나 풍력,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는 인류의 에너지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원전 활용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인류 마음의 미묘한 변화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기술 발전도 여론 형성을 거들었다.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원자력을 허용할 수 없지만 탄소배출을 낮추기 위해 도입해야한다는 미묘한 기준 차이가 원전을 대안으로 등장시켰다. 인간의 마음을, 그 변덕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탈원전 정책에서 경험했듯 국민 팬덤이 없다면 어떠한 발전 기술도 실용화할 수 없다. 디지털 문명시대, '소비자 마음을 사는 기술'은 전력산업의 핵심 아젠다로 삼아야한다.

마음을 움직이는 현명한 방법은 수준 높은 과학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기술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과학적 논리에 근거해 소비자를 설득하는 작업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효율, 이익, 경제성이 판단기준이었다면 인류를 지키는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모든 업무는 투명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관행이라는 모호함은 내려놓고 휴머니티와 진정성으로 무장해야 한다. 휴머니티는 팬덤의 근간이고 진정성은 팬덤을 지속하는 에너지다. 디지털 문명시대, 기업의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휴머니티와 진정성이 가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기적이다. 1970년대 원전을 도입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국산화 한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수출까지 이뤄냈다. 이제는 세계적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그 기적의 중심에 한국전력기술이 있다. 기적을 이루어낸 힘이 있다면 디지털 혁명도 해낼 수 있다. 인류의 에너지 기술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다. SMR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전력기술이 팬덤 가득한 기술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 믿으며 응원 메시지로 끝을 맺는다. 한전기술, 가즈아 미래로! **E&C**

사람처럼 말하는 AI

지난 호에서 인공지능은 자연언어 처리로 시작하였고 관련 연구는 모두 실패한 프로젝트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자연언어(natural language)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간이 주고받는 언어를 의미한다.

최근 구글은 다중검색모델 머(MUM)을 개발하여 인간과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공개하였다. 머은 방대한 데이터와 연결하여 복잡한 자연언어의 뉘앙스를 파악하여 검색하는 인공지능이다. 언어적 의미를 좀 더 잘 알아듣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주는 능력이 개선되었다.

최근 네이버와 LG그룹도 GPT-3(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3)에 뛰어 들었다. 프로젝트를 보면 노암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이 떠오른다. 슈퍼 컴퓨팅 수준에서 수천억 개의 자료를 딥러닝 과정을 거쳐 초거대 규모(hyperscale)로 자원을 투입하는 인공지능 연구이다. 그러나 인간의 뜻을 이해하는 자연언어 처리는 예상보다 난해한 분야이다. 지하에 100m 두께의 암반이 있다면 3m 뚫고 포기했던 것을 10m 더 깊이 판다고 달라질까?

확률적 경우와 조합수가 우주처럼 심대하다고 여겼던 바둑은 알파고에 의해 완파되었다. 바둑판의 한정된 공간, 적은 규칙은 제한 범위 내 바둑돌 하나하나의 가치나 포석의 패턴은 전체 바둑판의 변화를 빠르고 정밀하게 계산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압도한다. 하지만 자연언어는 확률과 패턴만으로는 정성 분석이 힘들다. 통사론(syntax)과 의미론(semantic)의 결합도 분석하기 어렵고 언어는 늘 가변적이며 유동적이다. 인간은 언어를 문맥(context)이나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 인공지능이 이를 수치화, 계량화, 논리화하기 힘든 이유이다.

인간이 말을 할 때 주체인 '나'와 내가 빚어내는 '개념', 이에 따른 기억과 감정을 담고 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라고 말하면 인간은 상대의 성별, 나이, 표정을 짐작하여 몇 마디 질문으로 바로 의미를 파악하여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그게 관계의 불편함인지, 경제적 고통인지, 꿈꾸는 소망의 좌절인지 주체는 이미 인간에 관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인공지능은 스트레스로 해결 논문을 찾아 읽어 줄지도 모른다. 언어의 정보지시적 소통은 인공지능이 잘 대응한다. "내일 한라산 등반하는데 날씨와 교통편 알려줘."는 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상황에 따라 똑똑하게도 멍청하게도 들리겠지만 정작 인공지능은 대화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생각, 기억은 어떻게 발생하고 의미를 지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시냅스 신경계로 연결된 뇌세포 말단에 미세 전기와 화학 작용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그림으로 그려진 픽토그램이지 않을까 추



측하기도 한다. 언어는 주체의 감정, 미추 의식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를 듣고 푸른 초원에 떠도는 구름을 그리는 사람도, 전쟁의 포화가 멈춘 휴전을 상상하는 사람도, 아름다운 멜로디의 음률이 귓가에 들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언어는 랑그와 빠롤이란 측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우리말에는 영어 L과 비슷한 소리는 있어도 R 소리는 없다. 영어 R과 유사한 소리를 내는 유럽 나라도 정확히 영어 R소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언어학자는 인간 유전자에서 소리를 식별하는 프로그램은 만 9세에 이르면 자체 소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L과 R 소리를 인식하는 나이가 지나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구글의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테스트 해 보면 Rain이라 말하면 대개 Lane이라 인식한다. "You are wrong?"은 "You are long."이라 알아듣기도 한다. 여러 번 신중히 말해야 'R' 인식에 성공한다. 인공지능은 L과 R 소리를 어떻게 식별할까? ROI 입 안쪽에서 구르는 소리이기에 아마도 음파 진동의 굵기와 강도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있는 듯하다. 이렇게 한정된 영역에서 물리적 특성과 차이를 인공지능은 뛰어나게 식별한다.

네이버와 LG그룹이 초거대 규모의 인공지능에 도전장을 내었다. 인공지능이 구현할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어디서 어떻게 응용할지가 관건이다. 인공지능은 광대하고 복잡한 자연언어 처리보다는 범위를 좁혀 특화하는 쪽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반도체 설계, 소재 특성, 원전 냉각재 상실사고 대응, 교량의 하중 분석 같은 영역에서 빛을 발한다. 이는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과 알고리즘 설계를 누가 잘하는가의 능력에 달렸다.

사람처럼 말하는 인공지능은 언제 도래할까?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백만 줄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이 단어 10개의 의미를 안다거나 인간 같은 사고(思考)를 한다는 징후는 없다. SF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 인공지능은 그런 능력을 지니고 나오지만 그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은 없다. 다만 인공지능이 도래한 스토리의 전개만 있다.

현실로 돌아와 미래 과학과 기술은 인공지능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 정부, 기업, 사회단체는 앞다투어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광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들판에 뿌린 씨앗에서 어디서 싹이 터져 나올지 알 수는 없다. 누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십 년 후 팔란티어와 A3.AI 같은 기업은 살아있을까, 흔적도 없이 지워질까, 현재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 참고 : 변형생성문법은 언어를 표층, 변환, 심층 3단계로 나누어 특히 변환생성 과정을 탐색한다. 인간은 문법을 태어날 때부터 지닌 채 세상에 나온다고 한다. 부모와 사회는 어떤 언어 모듈을 사용하는지 아기에게 알려만 주면 아기는 스스로 언어를 조작하여 숙달한다.

* 팔란티어와 A3.AI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미국 기업 이름. **ESC**

KEPCO E&C N e w s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항공·산업 분야 기술협력

한국판 뉴딜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6월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미래 항공 관련 산업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 관련 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신사업 모델 발굴과 양 기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최근 드론평대로 확정된 경상북도 김천시에 소재하는 양 기관은 드론, UAM 등 미래항공분야 신사업 추진 공동 대응, 드론 식별체계 구축·관리 관련 국제표준 선도하며, 경북 혁신도시 드론평대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 정부·지자체 관련 사업 등에 상호협조하기로 하였다.

김성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가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협력으로 신사업 모델 발굴과 함께 미래 교통수단의 안전을 조기에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미래 항공분야 신성장 동력 마련, 공공분야 산업용 드론의 활용도 증대, 드론 식별체계 구축 및 국제기준 표준화 등을 이루기 위해 양기관이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스마트건설·디지털엔지니어링 기술협력

한국도로공사와 ‘스마트건설과 디지털엔지니어링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건설과 디지털엔지니어링 기술의 협력을 통하여 융복합 혁신기술을 적용하고, 디지털 기술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여 건설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양 기관은 건설정보 모델 기반의 공정 및 프로젝트 관리,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드론/IoT를 활용한 시설물관리 분야 첨단 기술 등에 있어 긴밀한 연구 협력을 한다. 협약식에서 김성암 사장은 “디지털엔지니어링 기술과 스마트건설 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내외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디지털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력 기술이 정부의 K-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의 적극 이행과 더불어 엔지니어링 산업의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항공·산업 분야 기술협력



한국도로공사와 스마트건설·디지털엔지니어링 기술협력



김천시 지역상생 협력 기부금 전달



한국남동발전과 감사역량 강화 및 반부패·청렴 공동협력 추진



신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및 1차 운영협의회 개최

김천시 지역상생 협력 기부금 전달

5월 17일 김천시에 지역상생 협력 기부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김천시청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성암 사장은 김충섭 김천시장과 만남을 통해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기반 공기업으로서 지속적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김천시 아동복지사업 산하단체인 드림스타트의 멘토링 운영비와 취약계층 아동의 물품 후원에 사용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회사 재능나눔 봉사단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SNS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비대면으로 아동들의 정서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김천 지역내 어르신 및 아동복지센터에 삼계탕과 간편식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기부활동을 몸소 실천하였다. 앞으로도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지속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과 감사역량 강화 및 반부패·청렴 공동협력 추진

6월 15일 김천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과 ‘감사역량 강화 및 반부패·청렴 정책 공동협력을 위한 내부감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으로 특화된 내부감사 운영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청렴·반부패 우수시책 공유를 통해 청렴생태계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한다. 나아가 기관간 감사 인력의 교류, 공동감사반 구성 등을 통해 교차감사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일순 감사는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로의 장점을 심본 발휘하고 공유하여,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반부패·공정개혁 정책 이행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및 1차 운영협의회 개최

김천 본사에서 법률사무소 새움옥계 백지은 변호사와 이선중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선임하고, 2021년도 제1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백지은 감사관은 구미/김천세무서

KEPCO E&C N e w s

국세심사위원 등 다양한 감사관 경험과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노무/인권 영역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련 규정 검토 및 실무자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함기황 경영관리본부장은 “최근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우리 회사는 청렴/반부패/갑질근절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리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EPC 업무협약

김천 본사에서 ‘아리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EPC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리울 해상풍력사업은 전북 김제시 새만금 주변에 조성하는 총면적 0.409㎢에 100 MW급 건설사업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이다.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우리회사를 비롯한 LT삼보(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한국테크놀로지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리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업무를 수행한다. 해상풍력발전은 정부 정책인 그린뉴딜과 탄소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관련 시장이 약100조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해상풍력사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021년도 우수 혁신과제 포상

‘2021년도 우수 혁신과제’ 포상을 실시했다. 혁신계획에 반영된 58개의 세부실행 과제 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해양부유식 블록형 소형원자로(SMR)개발, VR/AR 기반 가상발전소 구현기술 개발” 등 6건이 우수혁신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번 포상은 우수혁신 과제 발굴과 과제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혁신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회사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광역 청렴시민감사관 공동 토론회 개최

6월 16일 전국 7개 공공기관과 함께 청렴사회 고도화 및 청렴생태계 확산



아리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EPC 업무협약



2021년도 우수 혁신과제 포상



(주)인플렉스코리아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윤리데이 맞이 비대면 청렴활동 전개

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광역 청렴시민감사관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 및 기관별 역할분담 협업방식으로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방식인 온나라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공동회의는 공공기관 협업 차원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반부패·청렴윤리에 많은 관심과 경험이 있는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사회 고도화와 청렴생태계 확산을 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TER 시운전사업 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김웅채 박사를 초청하여 ITER 시운전사업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원자력본부와 원자로설계개발단의 사업개발 및 시운전 전담/경험인력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ITER 시운전사업 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진태은 원자력본부장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시운전사업 진출을 통해 해외사업개발 활성화와 국내외 핵융합 에너지 관련사와의 협업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규 해외사업개발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에너지 전문기업과의 협업과 국내외 교육을 지속 진행할 방침이다.

윤리데이 맞이 비대면 청렴활동 전개

6월 2일부터 18일까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윤리데이(청렴강조기간)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윤리의 날인 2일 경북 김천 본사에서는 김성암 신임 사장의 청렴의지를 담은 CEO메시지 공표와 함께 경영진 청렴준수 릴레이 서약으로 윤리데이 시작을 알렸다. 이번 활동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인 ‘청렴’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약 3주간의 청렴강조기간 동안 비대면(온라인 중심, 정부 방역지침 준수)으로 직원들의 청렴인식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김성암 사장은 “한국전력기술은 윤리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여 청렴한 일터를 만들고, 인권존중과 보호에 앞장 서 나갈 것”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C**

품질안전처 품질보증팀



입사 후 동기가 “품질보증팀은 무슨 일을 해?”라고 질문했을 때,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참 설명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품질경영, 품질보증, 품질기술, 품질관리 모두 비슷비슷한 것 같았는데 3년차 이젠 조금은 설명할 수 있다. 좀 딱딱하지만 품질보증 정의부터 시작한다. “품질보증이란 발전소 구조물, 계통, 기기 등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만족스럽게 발휘하도록 확신을 제공하는 계획적,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품질보증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수행 사업에 대해 품질방침과 사업별 다양한 발주자 요건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유지한다. 둘째,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업무 모니터링, 품질감사 등을 통해 품질 달성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궁극적으로 품질보증팀은 문제를 사전에 방하여 성공적 사업수행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팀을 이끌어가는 엘리트 <이재우 팀장>

2020년 서울대 산업안전전략과정을 수료한 인재로서 팀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는 팀장이다. 항상 효율적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함께 발전해 가는 품질보증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품질관련 코드 전문가 <두성철 부장>

KEPIC 품질보증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품질 관련 코드에 정통하다. 열린 사고로 팀원들과 원활히 의사소통하고 있다. 2021년 ASME 인증갱신 사업의 인증기획팀장을 맡아 ASME 인증갱신 준비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팀의 관리자 <박종관 부장>

크고 작은 행사를 주관하며 팀의 1년 스케줄을 관리한다. 업무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후배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정보의 바다 역할도 하고 있다. 회사에서 준 스마트워치 덕분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운동하는 건강 매니저이다.

신재생에너지 및 EPC 건설사업의 <천병철 부장>

선량한 인상의 소유자이다. 틈틈이 건강 서적을 독파하여 주변 동료에게 노우하우를 전달하며 점심시간을 이용한 산책을 사랑하시는 건강 파수꾼이다. 신재생에너지와 건설사업 전문가이기도 하다. .



화력발전 종합설계용역 사업의 <김대원 부장>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 종합설계용역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며 에너지신사업 본부 품질경영계획서 및 절차서 관련 업무까지 맡은 베테랑이다. 퇴근 후 탁구를 즐기지만 체육동 폐쇄로 탁구 실력을 뽐낼 기회를 잃어버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품질교육 및 품질감사업무의 <김영규 부장>

현재 팀의 최고령으로 원자력과 화력 분야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사내외 품질분야 교육과 품질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이외 전문 사진가로 수준급 실력으로 직원들은 종종 접하는 사진을 제공한다. 아울러 숲 치유지도사와 숲 해설가로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에너지신사업 품질보증의 <김민성 사원>

에너지신사업 품질보증 업무를 맡은 천병철 부장과 김대원 부장을 보좌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재스러운 입맛으로 중후한 부장님들과의 식사 시 메뉴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 최근 체중이 증가해 다이어트를 조만간 할 예정이다.

해외사업 품질업무의 <원성호 부장>

입사 후 원자력 분야에만 근무하여 그 경력 및 지식을 근거로 NRC DC 인증, ITER 관련 용역, APR1000 관련 용역 및 해외 신기술사업과 미래 신성장그룹 관련 건설용역을 오랜 기간 능숙히 수행해 왔다. 등산,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며 계단을 활용한 일상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해외사업 품질업무의 <엄재민 과장>

팀내 브레인으로 통하며 스마트한 일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최근 담당 사업이 바뀌어 빠른 업무 파악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책상에 재미난 소품 아이템들이 많아 가장 트렌디한 책상을 가지고 있다.

해외사업의 품질업무의 <한지훈 과장>

원성호 부장을 도와 2016년부터 원자력 신기술분야 QA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해외사업수주를 위한 품질실사 준비 등 타 부서와 지속적 교류를 통해 품질보증을 업그레이드 수행 중이다. 다양한 운동화(스니커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색다른 아이템을 선보이며 젊은 감각을 팽팽히 유지하고 있다.

국내가동원전 및 BNPP 사업의 <박재우 차장>

영어에 능통한 엘리트로 해외사업 품질보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수행을 위한 NQA-Desk 생성 등과 같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며 더 나은 업무환경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가동원전 및 BNPP 사업의 <이준학 과장>

꼼꼼한 일 처리로 팀원들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또한 품질보증팀 지식인으로 많은 질의에 성실히 답해주며 팀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회사 밖에서는 독립영화제 등을 다니면서 힐링한다.

국내가동원전 및 BNPP 사업의 <석성재 부장>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며 자기계발에 항상 힘쓰고 있다. 품질보증 감사 수행 시, 타협 없는 감사로 회사의 설계품질을 지키고 있다.

국내가동원전 및 BNPP사업의 <김수진 사원>

팀 막내로서 열심히 배우는 중이다. 아직은 품질보증팀 질문봇으로 배우는 중이지만 여러 답변을 정리, 축적하여 앞으로 훌륭한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질문하는 자가 아닌 명확한 답과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리라 희망하고 있다.

원전건설 및 안전성평가 사업의 <채훈병 부장>

호탕한 성격으로 팀원들을 이끌어나가는 품질보증업무 리더이다. 팀원들에게 정감가는 선배로 또한 타 부서와도 친밀감을 유지하여 협업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김천 인근의 숨은 맛집을 알려주는 맛집 전문가로 활약한다.

사후관리 및 안전성평가 사업의 <이상철 과장>

업무수행 경력은 짧지만 세심한 업무처리로 일을 깔끔하게 종결짓는다. 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업무에 어려워하는 후배 팀원들 질문에 답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신고리 5,6 건설사업의 <송현우 과장>

팀의 분위기 메이커로서 팀원들의 행복한 회사생활에 일조한다. 뛰어난 언변으로 여러 회의 및 감사 활동에서 맹활약 중이다. 두 아이 아버지로서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히 임하려고 노력한다.

신고리 5,6 건설사업의 <홍순주 사원>

무력무력 성장하는 품질보증팀 젊은 피로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항상 학습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농구 동호회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한다. 열정적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E&C**

2021 국제원자력 에너지산업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전시회이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3개국 30개사가 총 60개 부스를 선보였으며 약 1,000명의 관람객이 참관했다.

올해 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명칭 변경한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은 국내 원자력 산업 우수성과 원전수출 중심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의 해외수출 및 신규 판로개척을 지원하였다. 원자력을 전공한 미래세대 취업지원과 우수 인력이 원자력 산업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전시회이다. 주요 전시 분야로는 원자력 설계, 안전운영, 원전기자재 및 설비, 연료, 원전체제, 방폐물 처리·저장·운송, 방사선 첨단의료서비스·의료기기 등이다. 원자력 관련 다양한 산업과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 품목이 선정되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출입통제를 강화했고, 테이블마다 파티션과 아크릴을 설치하는 등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전시하였다.

첫날 테이프 커팅과 함께 개막식이 열렸다. 이어서 VIP 인사의 전시 부스 순람을 하였다. 각 회사가 준비한 전시 컨셉트 및 주제, 주요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소개 시간도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 원자력본부의 MACST 설비와 ToSPACE를 설명하는 전시 패널을 구성했다. 또한, 전면 LED 화면에 ToSPACE 기술 소개 영상을 시연했다. 원자로설계개발단의 NSSS 제어계통 성능검증장비(NPA)와 CASK도 마찬가지로 영문 전시 패널을 구성하여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NPA 모형을 신규 제작하여 CASK 모형과 함께 전시 부스 앞쪽에 배치하였다. 원자력 산업 관련 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원자력 전공 학생, 고등학생들도 방문하여 전시부스 운영요원들의 설명을 들었다.

회사는 전력 및 원자력 기자재 구매상담회와 원자력 활용분야 일자리 박람회에도 참여했다. 구매상담회에서는 10개 전력(원자력) 공기업이 1:1 상담 방식으로 중소기업 사업 지원을 추진하였다. 전력 공기업의 공급망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상생의 행사도 하면서 총 8개 기자재 중소기업과 구매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튿날 원자력 분야 일자리 박람회에서 취업설명회와 취업상담회를 실시하였다. 취업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사에 기반한 Q&A를 진행하였다. 행사 중 전시부스 운영 요원들은 방문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모형과 전시 패널, 홍보 리플렛 등을 활용해 참관객들의 질문에 열심히 답변하였다. E&C



변화, 새로운 시작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백 년에 한 번 나올 보건 위기이며, 그 영향은 수십 년 느껴질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DNA(Data·Network·AI)로 대변되는 디지털 변환과 해외건설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Reshoring 등을 통한 보호주의 무역 강화, 대규모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역할 확대 등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한 기업에 전략적 민첩성의 중요성을 증가한다. 전략적 민첩성(Strategic Agility)이란 복합상황을 분석, 이해한 뒤 이를 이용하는 통찰력, 리더들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빠르게 추진하는 강력한 리더십, 시장변화에 따라 자원을 재배치하는 역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한때 노키아는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했다. 1996년 세계 최초 스마트폰 “노키아 9000 커뮤니케이터”를 개발한 노키아는 2004년 터치스크린과 인터넷 연결의 기술개발을 마치고 앱스토어를 포함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 개발을 내부에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3년 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등장과 함께 노키아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급감, 마침내 2013년에 휴대폰 사업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전세기 시가총액 15분의 1수준인 72억 달러에 매각되는 수모를 겪는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와 당시 스마트폰 개발에 충분한 원천기술 및 수행역량을 가졌던 노키아 경영진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당시 세계 최고의 피쳐폰 판매실적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전략적 민첩성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경영진의 통찰력 부재가 무엇보다 뼈저리게 느껴진다.

LG전자 휴대폰 사업부도 유사한 전철을 답습하였다. 2007년 휴대폰 시장에서 글로벌 Top 3에 진입한 휴대폰 사업부는 “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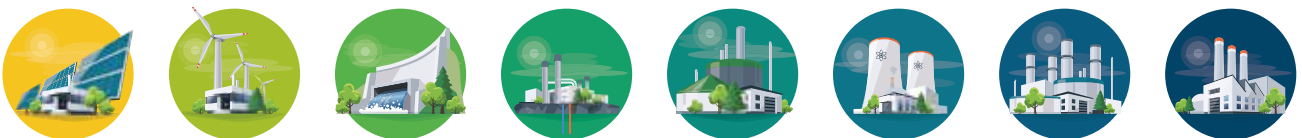
트폰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으며, 기술은 일정 단계에 올랐으니 마케팅에 힘을 쏟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2008년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를 맹신하여 초기 스마트폰 시장 진입에 실패하였다.

2010년 옵티머스 Q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추격에 고삐를 쥐었지만, 애플과 삼성이 선점한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20년 말 기준 5조원의 누적적자를 남긴 채 2021년 4월 26년만에 휴대폰 사업 철수를 발표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노키아와 LG전자 휴대폰 사업부는 스마트폰 개발에 충분한 수행역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쳐폰 마인드에 안주하여 경영진의 통찰력과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한 전략적 민첩성의 아쉬운 사례로 남았다.

눈을 돌려 우리가 속한 에너지 시장 상황은 어떤가?

기후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인류생존을 위해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평균온도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탄소배출 감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구 온난화 방지에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국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발전원별 설비 중 원전과 석탄은 2020년 46.3%에서 2034년 25.1%로 무려 21.2%



감소하며, 폐지하는 석탄화력 30기중 24기를 LNG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규 대형발전소 건설계획이 없는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사훈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자.”에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공군은 최고 전투기 조종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 새로운 조종사를 길러내는 일을 맡도록 했다. 이러한 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미 공군의 수준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반면 최고 조종사가 추락할 때까지 전선에서 싸우도록 했던 독일군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다. 1944년을 기준으로 연합군 조종사는 300시간의 비행훈련을 받았던 반면, 독일군 훈련 시간은 그 절반에 불과했다. (킴 스콧,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에서 인용)

달인과 고수 차이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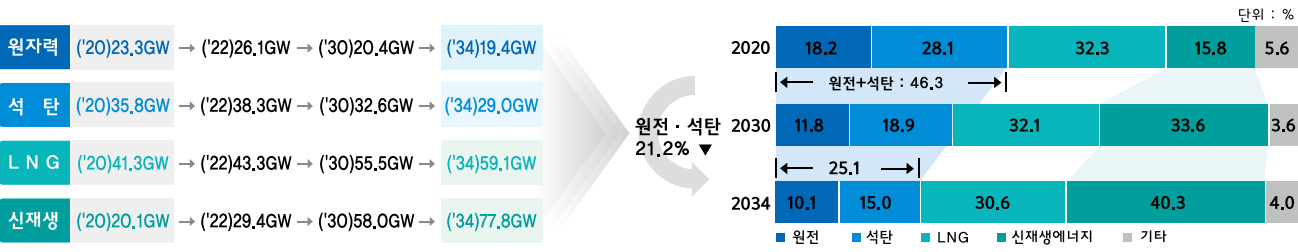
달인은 부단히 반복하여 최고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일컫고, 고수는 시행착오의 축적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고수의 길”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AI 시대 생존법으로 정형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수는 창의적 작은 아이디어를 적용하며 기록과 학습을 통해 자신을 “Scale up”하

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기술은 엔지니어 회사이다. OECD가 발표한 직업별 자동화 위험도를 보면 엔지니어링 전문가의 대체 위험율은 5% 정도로 추정한다. 엔지니어는 앞으로 전개될 AI 시대에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핵심역량 발전소 설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거대한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전소 설계를 독점하던 시장 선도자가 아닌 시장 도전자의 위치에서 많은 것을 새로 개척해야 하는 냉엄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국내 대형발전소 설계 종료에 따라 사라져가는 기술력을 보존하기 위한 기술전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혁신형 SMR 개발, 신재생에너지 시장 개척,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숙제 등 산적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낮에는 설계기술 자립, 밤에는 사내 대학원에서 주경야독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속적 학습, 업스킬링(Upskilling)과 리스킬링을 해야 한다. 현재의 발전소 설계기술을 고도화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대비하고, 디지털 기술과 그린뉴딜의 새로운 영역으로 전진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해결사로 거듭나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E&C**



오 텡(竹 - 肉)

내가 오텡이라는 단어를 처음 안 것은 시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강릉 중학교를 입학할 3월 무렵 쯤이다.

우리 집은 강원도 산골 마을이라서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가까운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 멀리 떨어진 강릉 시내 학교로 입학한다. 강릉 시내는 1년에 한 번 단오 날에 시골친구들과 함께 단오 구경이 전부였던 나에게 중학교 입학 초기 시내 생활은 생소하고 신기하였다. 아침에 학교 등교 길에 집집 사이사이 골목길을 걷다 보면 버려진 연탄재가 골목길 옆에 쌓여 있는 광경이나 많은 학생들이 보온 도시락이라는 별도 도시락 통을 들고 다니는 광경은 새롭기만 했다. 그리고 기름 짜는집, 풍어 빵집, 포장마차, 호떡집 등이 시장 골목 마다 길모퉁이 마다 즐비하게 있었다. 특히 이상한 광경은 시골 국민학교와는 달리 쉬는 시간마다 그 잠깐 동안 학생들이 학교 교문 앞 문방구집 가게 앞에 삼삼오오 모여 무럭무럭 김이 나는 큰 대야에서 대나무에 꽂힌 무엇인가를 급히 먹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입학 후 한 동안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나는 그 모습이 너무도 궁금하여 오리지널 강릉 시내 출신인 나의 옆 짝꿍에게 물어 보았다. 아이들이 먹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나의 짝꿍 남승철은 머리가 크고 키는 작고 손바닥은 아버지 손바닥 같이 넓적하고 말도 느릿느릿하여 나이 먹은 노인네 같은 데가 있었다. 그런 나의 짝꿍은 대답 대신 자신의 노트에 큰 한자 하나로 나의 질문을 대신하였다. 그 곳에는 대나무 죽(竹) 아래에 고기 육(肉)자라는 큰 한문이 쓰여 있었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것이 무슨 글자인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중학교때부터 한자를 시작 한지라 알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때는 한문을 배우는 시기라 서랍 속에 옥편이 항상 있었지만 실제 옥편에도 없는 글자였다. 그 친구는 나에게 자

신이 쓴 한자가 “오텡 오”자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먹는 것이 오텡(어묵)이라고 설명했다. 며칠이 지나 나는 그 대열에 드디어 합류할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궁금한 오텡을 처음 접하였다. 일단 빨간 플라스틱 컵으로 큰 대야에서 국자를 이용하여 국물을 담아 마셨다. 지금은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만 그 때는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였다. 오텡 국물은 약간 김이 날 뿐 그렇게 뜨거워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 나는 오텡 가게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왜냐고요? 오텡 국물은 예나 지금이나 간장이 포함되어 펄펄 끓지 않지만 한 입에 마시기에는 엄청 뜨겁다. 그때 오텡을 처음 먹어본 지라 오텡 국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고 그 빨간 플라스틱 오텡국물을 한 번에 마셔 버렸고 입 천장은 물론 입 안 전체가 데어 오랫동안 고생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오텡 입문은 끝이 났지만 점심시간에 우리 반 강릉 출신 아이들의 주요 인기 반찬은 오텡 볶음 반찬이었다. 점심 시간에 친구들 도움으로 오텡 반찬을 도시락 뚜껑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담아 나의 점심 반찬으로 즐길 수 있었다. 그때 오텡 반찬 맛은 황홀할 지경이었고 평생 그런 맛을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몇 개월 시간이 지나고 하루는 어머니에게 오텡 반찬 애기를 했다. 나도 점심 도시락 반찬으로 오텡반찬을 싸가지고 가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점심으로 오텡 반찬을 준비해 주셨고, 점심 시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오텡 반찬을 즐기기 위해 도시락 통을 열었다. 그런데 나의 오텡 반찬은 다른 아이들 오텡 반찬 보다 두께가 2~3배 정도나 되어 보였고, 색깔 또한 허여 멀쩡게 보였다. 친구들은 오텡 반찬이 왜 이러냐고 조금은 조롱 섞인 모습으로 나의 반찬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날 이 후 다시는 어머니에게 오텡 반찬을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후 알게 된 일이지만, 막내 아들이 오텡 먹고 싶다고 하자, 어머니는 오텡 반찬을 동네에서 구하려 노력했지만 어머니도 처음 보는 오텡 반찬을 강원도 그 산골에서 구할 수가 없었고 근처 다른 마을 사는 친척집에 부탁하여 오텡 재료를 조금 얻어 오셨다. 어머니가 구해온 오텡 반찬은 근처 군부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남은 오텡을 친척집에서 조금 얻어 어머니에게 보내준 것이었다. 나는 군부대 오텡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오텡 보다 훨씬 두껍고 허영다는 것을 군대에 입대하여 알았고 오텡이 두꺼워 양념을 웬만큼 많이 하지 않고서는 오텡 반찬이 허여 멀쩡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어머니는 내가 군을 제대할 무렵 세상을 떠나셨고 결혼하여 가끔씩 오텡 반찬이 밥상에 올라 오지만 아련한 나의 추억에 남은 그 때 오텡 맛을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다. E&C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위에서



문성빈 스마트융합실 대리 / 캐논 650D

고산병을 무릅쓰고 해발 3,700m를 넘나드는 우유니 사막을 간 이유가 있다.

바로 우기(11월~3월)의 물 찬 우유니 사막을 보기 위해서이다. 우기에 물이 소금호수에 고이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 된다. 사진 속 지프를 타며, 외국인 여행자들과 우유니 사막투어를 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이라도 아름다운 우유니 사막 모습 앞에서는 모두 천진난만 아이처럼 우유니 사막의 장관을 즐겼던

기억이 난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데칼코마니 같은 풍경은 과연 이곳이 내가 사는 지구가 맞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들 정도로 장관이었다. 비행시간이 30시간 넘게 걸리는 지구 반대편 남미대륙에 위치한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은 죽기전 한번쯤 다녀와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피를 나누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피는 생명의 동의어다. 인간은 마이크로 단위의 술한 생명체를 제 몸에 간직한 채 살아간다. 적혈구와 백혈구도 생명으로 태어나 죽는 생사유회를 거친다. 몸에 상처가 나면 피는 열심히 성벽을 쌓아 막는데 그게 바다의 산호 성분과 같다. 결국 우리가 바다에서 왔다는 걸 눈물과 피는 암시하고 있다. 피는 흐른다. 산소, 호르몬, 양분도 따라 흐른다. 흐르지 않으면 죽는다. 옛날부터 피를 나누어 마시는 의식은 생사를 함께 하겠다는 결의였다. 또 살과 피는 빵과 포도주로 성변하여 생명을 나누는 상징이 되었다. 사랑의 본질은 조건 없이 주는 기쁨이다. 아기를 돌보는 엄마는 고통을 겪지만 자신을 주었기에 행복한 추억을 만든다. 6월 1일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었기에 그 자신 기쁠 것이다.

헌혈차 양 옆 침대에 직원이 누워있고 간호사 두 분이 바빠 움직인다. 헌혈을 마치고 자랑스럽게 헌혈증서를 보이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이분은 단정한 머리에 신수가 환해 보이는 이마, 짙고 또렷한 눈썹, 초롱초롱한 눈매를 가지셨다. Who is Who는 주변인 아니면 알아맞히기 힘들었는데, 헌혈증서에 그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다. 차츰 더워지는 날씨에 아이스 커피 한 잔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란다.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sky03tree@kepco-enc.com으로 7월 30일까지 정답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다섯분께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동남아의 스위스 베트남 사파 고산지대

Writer 박지영 글로벌마케팅실 인턴



눈 앞에 펼쳐지는 풍경만으로도, 이곳에 올 이유는 충분했다. 북적북적한 도시의 소음과 불빛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었던 곳이다. 수도 하노이에서 버스를 타고 6시간 정도를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사파. 베트남 북서쪽에 위치한 사파는 고산지대로, 연중 비교적 시원한 날씨를 느낄 수 있다. 낮에는 향기로운 풀 내음을 느끼며 층층의 계단식 논이 만드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밤에는 잔잔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잘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에 트래킹 명소로도 유명하다. 커다란 시계탑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 사파 시내의 동남아와 유럽의 분위기가 공존

한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귀족 휴양지로 개발한 곳이라 그런지 각종 건축물을 보다 보면 유럽 소도시에서 온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소수민족이 살고있는 깎뚝마을이 있다. 정돈되지 않은 울퉁불퉁 돌길을 따라 마을을 걷다 보면, 물소를 타고 노는 아이들이 지나간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소수민족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글을 쓰다보니 사파의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이 다시 그리워진다.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자유롭게 이곳저곳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풍력발전과 푸르름이 아름다운 제주도

Writer 정민정 토건환경기술실 사원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발이 묶여, 가끔가다 밖에만 나와도 '이렇게나 바깥 날씨가 좋았었나, 하늘이, 여름의 초록이 이렇게 예뻐나' 싶은 요즘이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제주도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두 장소를 추천한다.

첫 번째, 다들 가는 관광명소보다는 사람이 적은 곳을 찾다가 '월령리 선인장 군락'을 우연히 방문하였다. 바다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려고 찾은 장소인 만큼, 일몰을 보기 위해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해가 지기 기다렸다. 풍력발전의 아름다운 모습과 제주 바다, 그리고 핑크 빛 노을이 완벽한 하루였다.

두 번째, 섭지코지에 위치한 '유민미술관'에서 보는 성산 일출봉이다. 유민미술관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건물로 건물 자체의 아름다운 모습과 더불어 미술관에 입장할 때와 퇴장할 때, 가로로 길게 난 파노라마 창을 통해 성산 일출봉을 볼 수 있다. 날씨가 좋았던지라 미술관에서 본 성산 일출봉이 아름다웠다. 미술관 밖으로 나가면 작은 언덕에서도 넓은 바다와 성산 일출봉을 볼 수 있다. 이번 여행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모두와 나누고 싶다.

Beautiful



내 맘속에 저장된 베어트리파크 가을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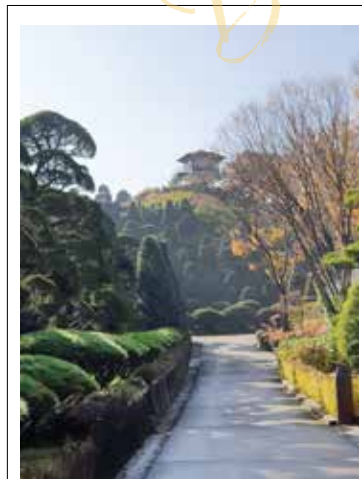
Writer 이 소 영 기계배관환경기술실 부장

나에게는, 때론 즉흥적 번개 만남에도 흔쾌히 'ㅇㅋ' 시그널로 화답하는 소중한 벗들이 있다. 공간적으로 멀리 있든 가까이에 있든, 서툰 내 생활의 조연자이자 지지자인 그녀들~!

코로나로 몸 사리고픈 그 예쁜 가을~

우리는 공원 전체를 전세라도 낸 듯 우리만의 대화로 채우며 한적하게 베어트리파크를 거닐고 있었다. 공원 이름에 걸맞는 귀염둥이 곰들은 애완동물원에서 살짝쿵 조우했고 형형색색의 자연이 만든 가을 색감에 조르타~ 연발하며 사진 포즈를 취하곤 했다.

주말이 아닌 평일 일상의 이탈을 이 좋은 가을을 배경으로 소중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귀가길에 깊은 여운이 남는다. 과거 어느 지역의 여행에 보태져 그 가을 번개모임도 핸드폰 메모리와 내 맘속의 추억 한 컷으로 베어트리파크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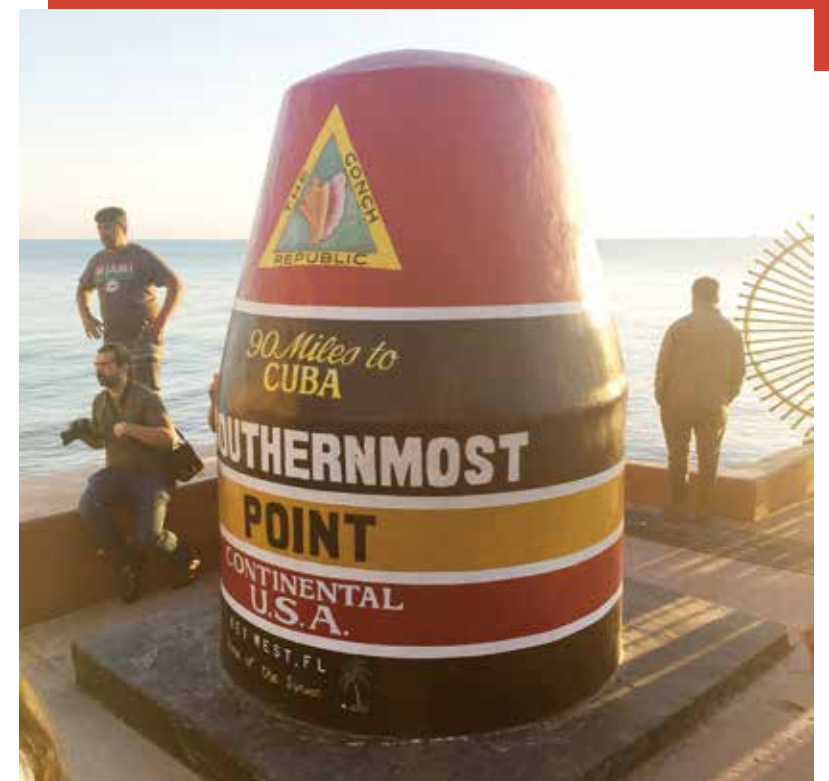


헤밍웨이를 품은 미국 최남단 키웨스트

Key West

Writer 이 다 은 기술전략실 인턴

흔히 미국으로 여행계획을 세우면 LA, 뉴욕, 마이애미처럼 누구나 알만한 곳을 방문한다. 미국의 다양한 도시를 방문하며 가장 좋았던 곳은 '키웨스트'이다. 플로리다에는 약 2천 여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 중 키웨스트는 플로리다 1번 도로를 쫓 따라가면 보이는 미국의 최남단 섬이다. 키웨스트에선 1년 내내 따뜻한 날씨를 즐길 수 있으므로 365일 중 언제 방문하더라도 참 좋은 곳이다. 키웨스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독특한 문화와 헤밍웨이 그리고 바다를 들 수 있다. 남미 지역과 가까이 위치하기에 북미와 남미가 적절히 섞인 모습을 보는 큰 특징이다. 영어뿐 아니라 스페인어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고, 길거리에서 흥겨운 남미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들도 볼 수 있다. 또한 키웨스트에선 헤밍웨이 집을 볼 수 있다. 이 곳엔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발가락 여섯 개 고양이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고양이들의 발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키웨스트에선 아름다운 에메랄드 바다를 볼 수 있다. 바닷가이다 보니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그 중 랍스타 샌드위치를 추천한다. 우리나라에선 고급음식으로 여겨지는 랍스타가 이 곳에선 저렴한 가격이다. 샌드위치 안에 가득한 랍스타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키웨스트에 닿기 위해선 해변 도로를 4시간 가량 달려야 한다. 하지만 워낙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 즐거운 4시간이다.



한국의 매력을 가진 안동 도산서원

Writer 연 찬 영 원자로안전점검실 사원

도산서원은 드라이브 코스부터 서원 내부까지 모든 것이 아름답다. 도산서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산길이다. 그 길은 숲, 도로, 낙동강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도로를 따라 어우러진 수목들과 그 틈새로 드문드문 보이는 낙동강이 아름답다. 지금까지 운전해 본 드라이브 코스 중 도산서원 길보다 멋진 곳은 없었다. 여행의 시작을 설레게 만드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이다. 서원 앞에서 강을 내려다 보는 풍경은 환상적이다. 넓고 푸른 낙동강 사이에 떠있는 시사단과 그 뒤로 웅기종기 모인 작은 마을의 풍경은 색다른 매력으로 가득하다. 한강이나 금강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결이 다른 한국적 멋이다. 도산서원은 사진 맛집이기도 하다. 서원 내부는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그 덕분에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간직한 사진 스팟이 도처에 널려있다. 누가 촬영하더라도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사진 맛집이다. 실제로도 인생샷을 담아내는 관광객을 볼 수 있었다. 도산서원의 아름다움을 사진과 글로는 담을 수 없다. 국내 여행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도산서원을 꼭 가보시길 추천한다.



자연이 주는 쉼 필리핀 보라카이

Boracay

Writer 이 현 호 전기계측기술실 사원

재작년 말, 직장인이 되고 (당시 전 직장) 다들 바빠 자주 만나지 못했던 대학 동기들과 함께 한국인에게 유명한 휴양지, 필리핀의 보라카이로 떠났다. 당시 2018년도 보라카이 섬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1년간 폐쇄되어 있었는데 덕분에 여행할 때에는 폐쇄가 풀린지 얼마 되지 않아 최적의 자연환경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 배출과 환경파괴를 야기하는지 새삼스럽게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여행 기간동안 매일 아침, 저녁에는 호텔의 정원에서 바다 뷰를 보며 산책했었는데, 이곳이 Station 1, 2, 3라 불리는 메인 변화가에서 다소 떨어져 있었지만 그 점은 전혀 아쉽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멍하니 노을지는 해변을 바라보며 마셨던 칵테일이 요즘은 많이 그립다. 업무와 일상으로 바쁘고 지치더라도 지금처럼 꾸준히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면 조만간 지금의 사태가 진정되어 마음 편히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 그때는 사진속의 모습보다 더 맑은 자연과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조금만 더 참고 힘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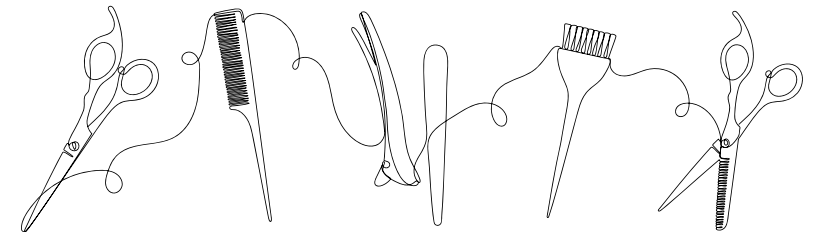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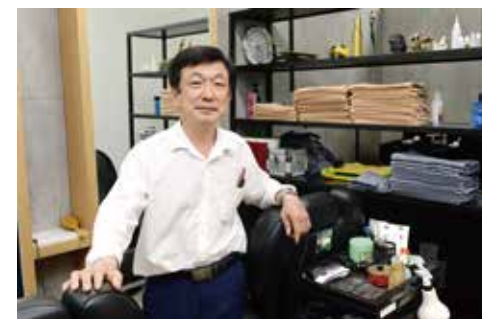
강동모 이발사의 비인부전(非人不傳)

기차길, 차도를 한참 벗어나 검정 고무신에 개구리, 메뚜기를 잡아넣고 농소면 십리 길을 걸어 다녔다. 80세 외삼촌이 부곡동에서 동남이발관을 아직 운영하시는데 그로부터 기술을 배웠다. 지좌동 88이발소를 32년간 운영하다 한기본사로 옮긴지 5년이 지났다. 교도소 재소자에게 이용 기술을 가르쳐준 덕에 신문에 난 적도 있다. 3년 전 지하1층 이발소에서 꾸벅꾸벅 졸며 머리를 깎는데 누군가 “악수 합니다.”는 말에 깜짝 놀라 덮어쓴 푸른 천 사이 얼떨결 손만 쏙 내민 적이 있다. 앞쪽 거울을 보니 이철우 국회의원(현 경북도지사)이다. 강동모 아저씨에게 인사차 들렀다고 한다. 나중에 “뭔 친척이라도 되는교?” 물어보았다. 양로원, 마을회관 봉사활동 다니며 알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사회 활동에도 열심히 집착했다.

이발소에는 항상 성경책이 펼쳐져 있다. 그날 모세 5경의 하나인 민수기 페이지가 열렸다. 이해하는지 물었더니 자꾸 들여다보면 조금씩 알아지는 게 있다고 한다. 경영의 신, 피터 드러커 말씀을 책상머리 아닌 몸으로 실천한 사람을 본 적은 없다. 드러커 자신도 밝혔지만 경영에서 ‘Plan-Do-Check’는 중용의 도를 실현하는 만큼이나 어렵다. 틈만 나면 수첩과 공책에 무언가 빼곡히 적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지 자신만의 오롯한 시간을 가진다. 놀랍게도 새벽 6시 머리 깎는 손님이 있다고 하니 계산해 보면 그 이전 시간대에 출근하신다.

부산말로 ‘뎨뎨모치’는 떡이 돌처럼 굳으면 바늘도 안 들어간다가나 좁쌀 한 알 땅에 허투루 흘리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 어릴 적 동네 할머니가 “저 아는 혼자 산에 던져놔도 먹고 살 끼라.”고 말씀하셨다. 시간, 돈, 일과를 알뜰히 계획하고 챙겨 허비하는 법이 그에게 없다. 겹겹이 보관한 영수증철, 신문 스크랩, 가게부를 보면 삶을 물렁하게 사는 사람이면 놀란다. “돈이란 걸 쫓아다니면 정(情)이 없어지고, 함부로 다루면 가난을 면키 어렵고, 숭상하지도 천시하지도 않아야 이 겁난 세상을 건넌다는 게 이분 철학이다.

“사람이 마이 비우면(많이 배우면) 소심해져 쫄쫄해지는 기라에” 관념론자로 세상을 머리로만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는 조금 뼈 때리는 말이다. 반대로 격물치지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도 있다.



LG그룹이 시를 크게 시작해서 일이 없어지면 차라리 천하고 하찮은 것에서 길을 찾으면 자기 간수는 된다고 말씀하신다. “삶은, 한결같이, 티 내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게 이분 지론이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 도사식으로 하면 ‘늘 그러함의 道’가 되겠다.

한때 퇴폐 이발원이 사회에 흥행하는 바람에 타격을 입었고 IMF 실업대란 시절 네일아트, 미용 쪽으로 사람들이 대거 몰려갔다. 시대 흐름에 이발업은 조금씩 흔들렸다. 그러나 이발에 남다른 자부심으로 이도 비인부전(非人不傳)에 속한다고 말씀하신다. 진실은 시대가 변하여도 사람은 신발을 신고 머리는 자란다. 그러기에 80세까지 일을 이어갈 계획이다. 업(業)과는 별도로, 사람은 빛과 소금처럼 살지 않으면 그냥 짐승 마냥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웃 돌보는 일 또한 접을 수 없다. 매일매일 시계 초침처럼 이발, 봉사활동, 텃밭농사, 교회 일을 분초를 쪼개가며 살아간다. 성스럽다는 안식, 좀 쉬는 시간을 가져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부지런함이 몸에 베인 분이라 이게 천성 같다.

서양에는 “이발할 때가 되었냐고 이발사에게 묻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그 말이 생각나 질문을 바꾸어 손님 중 말없이 의자에 앉은 분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깎아 달라고 주문하는 비율이 어떤지 여쭙었다. 대략 10% 사람이 스타일을 주문한다. 그러다 이래저래 깎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추천하면(모든 이의 두상과 머릿결은 다르다) 나중에 그쪽으로 정착하는 분도 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본인 머리는 누가 해주는 것일까? 여태껏 거울 보고 손수 깎았다고 하신다. 절에 가면 스님도 이발 기구와 면도기로 자삭하는 분이 있듯 그게 가능한가 보다.

강동모 이발사는 교회 다니는 아가씨와 결혼에 성공, 현재 KBS 열린음악회를 관장하는 아들, 간호학을 전공하여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 딸을 두고 있다. 텃밭에는 딸기, 마늘, 감자, 복숭아, 자두가 싱싱하게 자라고 주말이면 부부는 반찬을 만들어 여러 이웃과 나눈다.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떻게 살면 좋을지 ‘계측(자신의 표현법으로)’을 한단데 어쩌면 자신만의 예배와 기도시간인 것 같다. 옛날 예배당에 고무신 신고 가면 귀한 카스테라와 우유를 주었다. 나을 때 고무신이 뒤엎켜 짝이 맞지 않는 짝 짝이로 집에 돌아갔는데, 펼쳐진 민수기를 슬쩍 보다 구약 어딘가 “나를 만나려면 먼저 신발을 벗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가지런히 신발 벗어놓고 가슴 여미는 이분 가정에 평강이 함께하기를. **E&C**

ETF는 뭇덩이 주식

퇴직 앞둔 동료를 오랜만에 만나 안부를 여쭙니 “퇴직금 관리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펀드와 ETF로 옮겨 손실을 조금 만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ETF가 귀에 들렸다. ETF는 ‘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로 통하지만 대부분 뭇덩이, 덩어리 주식이라는 별칭을 사용한다. 오히려 뭇덩이라 이해하는 쪽이 쉬워 보인다.

ETF는 주식과 펀드 사이 탄생했다. 그래서 절반씩 부모를 닮았다. 일반인은 주식 종목 선택이나 언제 사고팔아야 할지 난감한 법이다. 게다가 손실이 불어나면 머리가 멍멍해진다. 펀드에 돈을 맡기고 비싼 수수료 내는 쪽도 손실이 늘어나면 가슴이 먹먹하다. ETF는 주식처럼 언제든 사고파는(Exchange Traded) 면에서 주식에 가깝고 펀드같이 여러 종목을 담는 측면에서 펀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펀드는 신청과 해지가 복잡하고 수수료 가 비싼 편이다. 이를 보완한 게 ETF이다.

여러 이유로 주식과 펀드에서 투자금이 서서히 빠져나가 ETF 몸집이 불어나고 있다. ETF는 왜 운영 수수료가 펀드보다 더 쌀까? 투자금이 몰리면 박리다매가 가능하다. 뭇덩이라 부르는 이유는 ETF 1주에 보통 10개 이상의 주식종목이 담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이미 짜여져 있다. ETF는 크게 지수추종형과 섹터형으로 나눈다. 지수추종은 해당 지수 전체를 담고, 섹터는 반도체, 전기차, 금융 등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유사한 ETF끼리는 가격등락과 수익률이 비슷하다. 수익률이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는 담긴 구성종목과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ETF에서 인텔(5%), 엔비디아(4%), AMD(6%)가 담겼다면 그 구성 비율을 조금 변경하여도 수익률이 달라진다. 예전 ‘인텔 인사이트’가 요즘 ‘인텔 아웃사이드’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텔 주가가 흘러내려 이걸 빼고 브로드콤을 넣고 싶어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ETF 수수료도 아깝다 생각하는 분은 ETF 구성종목을 참고하여 알찬 놈만 골라 투자하는 게 이익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투자할 환경이 안되거나, 별반 신경 쓰기 싫다는 분은 ETF가 대안이다.

ETF도 유의할 게 있다. 각각의 ETF 수수료가 다르고(상대적으로 펀드보다 싸다), 언제든 사고파는데 제약받을 수 있다. ETF의 투자금 운영규모와 거래량이 적당해야 한다. 규모가 작고 주목받지 않는 ETF는 거래가 한산하다. ETF 구성종목과 비율, 수수료, 운영규모, 거래량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 대체로 ETF는 개별 주식보다 단가를 싸게 만들어 필요시 조금씩 사서 모을 수 있다.

ETF도 엄연한 주식이다. 매일 가격이 움직인다. 주주와의 약속으로 구성종목과 비율을 바꾸지 않는 것을 ‘패시브’, 시장 상황에 맞게 운영사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을 ‘액티브’라고 부른다. 액티브는 구성종목과 비율을 바꾸기에 공격적 투자이다. 간혹 TR(Total Return)이란 꼬리표를 단 ETF가 있는데,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고 해당 ETF에 재투자한다는 뜻이다. 배당금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소액이라 귀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받으면 썩 먹고 알먹기겠지만 배당주식은 대개 주가는 오르지 않는 안전빵이 많다.

ETF는 국내와 해외에 비슷한 것도 많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 도통 모르겠다면 ‘ETF Check’라는 앱을 사용하라. 국내와 미국의 ETF 정보를 정리, 비교분석도 해준다. 정부는 ETF를 일종의 연금 개념으로 보아 ‘국내 판매’하는 ‘해외 ETF’를 대상으로 세금 혜택도 준다. 그리고 ETF에는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형태도 있다. 이익 3배, 손실 3배 곱하기가 붙는다. 이런 경우는 투기로 보아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곱하기 종목은 경험, 확신, 전략으로 선수들이 활용하니 스스로 하수라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 퇴직금 관리도 개인이 하는 시대, 펀드와 ETF도 잘 따져 보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란다.

ETF 장점 : 안정, 장기적 투자에 유리, 단가 싼 편, 주식처럼 매매하기에 편리함, 별의별 테마로 풍성하다.

ETF 단점 : 개별 주식보다 주가 등락 폭 작다. 간접투자이니 주식투자 재미는 없다.

참고

- 1) ETF는 뭇덩이이지만 구리, 금, 원유 등 단일물로 구성한 것도 있다.
- 2) 개별 주식은 ETF 편입 여부에 따라 주가 영향을 받는다.
- 3) 최근 국민연금금 미국 ‘PBUS’를 대량 매입하였다. 별로 주목 받지 않고 거래도 한산한 ETF였는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C](#)



GRIGO



‘그리고 돈가스를 먹었다’

오봉저수지 입구 왼쪽, 골프연습장 언덕에 돈가스 잘하는 집이 있다는 입소문을 들었다. 멀리 자주색 건물에 알파벳 ‘GRIGO’ 이름이 보이고 그리스어 같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다. 알고 보니 우리말 접속사 ‘그리고’이다. ‘돈가스 그리고 커피’, ‘커피 그리고 산책’ 무언가 더붙어 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다.

“김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외출을 삼가라”는 사내 방송을 하던 지난주 발길이 잠시 뜸해졌다. 대개 손님들은 혁신도시 내 공기업 직원이 시내를 벗어나 야외에서 한적히 식사 즐기려는 분이나 특히 여성분이 선호한다.

추억의 음식으로 건빵, 짜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1970년대는 경양식 돈가스가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본격적으로 한국인이 포크와 나이프로 칼질을 한 계기도 돈가스였다. 그 시절 돈가스는 양배추를 잘게 썰어 케첩과 마요네즈를 얹고 약간 묽은 소고기 크림수프, 단무지가 곁들여졌다. 당시 중학생은 용돈을 보름 모아 토요일 학교 수업을 마치면 달콤새콤 돈가스 먹는 게 큰 기쁨이었다. 지금은 ‘옛날식 돈가스’와 ‘일본식 돈가스’로 나누지만 그리고는 옛날 돈가스를 바탕으로 현대식 세팅과 해석을 가미했다.

포크 커틀릿(pork cutlet)을 일본인은 돼지 돈(豚)을 넣어 ‘툰카츠’라 부른다. 한국인이 일본어 청음과 탁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데 마지막 ‘츠’는 한국에 또 없는 소리이다. 한글은 세계에서 소리를 담아내는 가장 탁월한 문자 체계지만 세종대왕 뜻과 달리 후손들은 문자와 소리 차별을 심하게 한다. 그래서 본래 소리와는 영 땀판인 ‘돈가스’라는 표준어가 탄생했다.

돈가스는 돼지고기를 어떻게 조리하는가(망치로 두들겨 패기도 함), 얼마나 바삭하게 기름에 튀겨내는가에 크게 좌우한다. 빵가루 옷을 입힌 덕에 소스와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눅진해진다. 바삭한 맛을 좋아하는 분은 처지기 전에 빨리 먹는다. 레스토랑은 수제, 매운, 치즈 맛의 돈가스 3종을 낸다. 눈대중과는 달리 먹고 나면 굉장히 배부르다. 돈가스 맛은 나무랄 수 없는 수준이다.

한기 직원에게 그리고를 찾는 이유를 물었더니 호젓한 오봉저수지를 언덕에서 바라보는 풍광, 실내 인테리어의 깔끔함, 잔디를 밟으며 웬지 콧바람도 쉴 수 있다는 느낌이 좋단다. 복숭아, 자두, 배나무, 벚꽃이 피는 봄 무렵 오봉저수지 인근 경치가 좋아

드라이브에 끼워 찾는다는 분도 있다. 실내 입구 맞은편은 큰 액자형 창문이 시원하게 바깥으로 터져있고 골프연습장 쪽은 통유리 벽면으로 처리하였다. 바닥 타일 색조는 나무 결의 고급스러운 윤이 난다. 해 질 녘 원구형 백열등의 필라멘트가 나선형으로 노랗게 타오르면 한결 운치가 더해진다.

멜론과 연결된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은 오디오 면에서 좀 약해 보인다. 데스크탑 형 스피커에 ‘New York State of Mind’ 같은 재즈 노래가 나온다면 분위기에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에서 마음 한 겹 어딘가 잡아끄는 구석이 있었다. 가만히 그 미세한 움직임 바라보니 레스토랑을 나와 정원 왼편으로 보이는 작은 언덕이다. 강직한 화강암은 아니고 약간 사암 느낌이 감돌고, 세한도에 본 것 같은 한 번 휘어지고 굽어진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어떤 폐허의 흔적을 스쳐 가는 손길처럼 쓸쓸한 가슴을 흔드는, 나태주 시인의 ‘섬’에 나오는 시 한 구절 “너와 나 손잡고 눈 감고 왔던 길, 이미 내 옆에 네가 없으니 어찌할까? 돌아가는 길 몰라 여기 나 혼자 울고만 있네. (실내 비치된 시집 있음, 詩經에 나오는 시와도 비슷)”이 떠올랐다. 인생이란 인왕제색커늘, 언덕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여기 주인장이 누구인가요?”, “네, 저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처럼 보이는 아십 대 젊은이가 그리고를 운영한다. 정원이 아름다워 여름철 바비큐 그릴에 수제 햄버거나 핫도그, 피자과 생맥주도 어울릴 것 같은데 주인도 그런 제안을 간혹 듣는다고 한다. 레스토랑 주인은 대구가 고향으로 경기도에서 2년간 직장을 다니다 레스토랑 운영 제의를 받아들였다. 어려운 결심이었을 터인데 한번 꿈꾸었던 일을 하고 싶다고 김천으로 바로 내려왔다. 레스토랑 메뉴와 요리를 누나와 함께 연구하고 시작했다.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젊은이를 보면 괜히 부럽다. 그리고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까? 그리고 아무런 말도 없었다고 끝내야 할까, 아니다! “그리고 새우 필라프도 꽤 맛이 좋다.” **E&C**

술향이 그윽한 술송주

정면 멀리로 천왕봉을 마주 보는 지리산 자락 경남 함양군 지곡면 로터리 언덕에 있는 술송주 양조장(2015년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은 제법 규모가 있다. 술송주 양조장에서는 조선시대 선비 정여창의 16대 손부인 박흥선 명인(식품명인 제27호, 경남무형문화재 제35호)이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비법으로 술을 만든다. 남편 정천상씨는 양조장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원래는 집에서 가양주로 만들던 것을 1996년도에 양조장을 차리고 대량생산을 하였다.



개평 한옥문화체험 휴양마을은 '좌안동 우함양'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영남지역 대표적 선비 마을로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된 고택촌이라 한옥박물관으로도 불리는 하동 정씨와 풍천 노씨 집성촌이다.

개평마을은 100년이 넘는 한옥이 즐비한 한옥 여행지로 대하드라마 토지, 드라마 다모/미스터 션샤인/왕이 된 남자, 예능 1박 2일을 촬영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일두고택은 전형적 경남지역 양반가옥(국가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으로 조선초기 성리학 대가였던 사립파 일두 정여창 선생이 살았던 고택이다. 일두고택에서 안내도를 따라 술송주문화관, 하동정씨 고가, 오담고택, 풍천노씨대 종가, 노참판댁 고가 등을 차례로 둘러보는 것도 좋다. 안동 하회마을보다 전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옥이 더 잘 보존되어 있다. 무엇보다 구비구비 나있는 돌담길 골목이 정겹다. 대부분 한옥이 실제 살림집들이라 시골 분위기 그대로다. 골목길 노변에서 만나

는 접시꽃, 흙담 사이로 뿌리내린 능소화, 담 너머로 가지를 넘긴 석류나무가 한옥 마을의 운치를 한껏 더한다.

시음장겸 홍보관인 술송주문화관은 개평마을의 대표 한옥이라 할 수 있는 일두고택 옆에 있다. 술송주문화관은 조선시대 제천현감을 지낸 놀재 정재범의 자택을 350년간 원형 그대로 보존한 고택 '명가원'에 자리한다.

여기에는 경남지방을 대표하는 전통주 술송주의 명맥을 잇기 위해 서울 잠실서 귀



촌한 명인의 큰딸 정가영 이사가 명인을 돕기 위해 상주하는데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한다 할 정도로 전통주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 술송주 명가원 술송주(13도, 경남도 무형문화재 35호)와 담술(40도)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다. 술송주는 백미에 솔잎과 송순(소나무순)을 넣어 빚는 약주로 송순과 솔잎을 빼고는 어떤 감미료도 들어가지 않는다. 담술은 술송주를 증류해 2년 이상 저온 숙성한 증류주로 꿀이 첨가되어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이 난다.

술송주는 송순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송순주라고 했지만 상표등록 과정에서 술송주라고 정했다. 송순과 솔잎은 술의 향과 맛을 끌어올리는 건 물론 산패를 막는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한다.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마을 뒷산 소나무에 새순이 올라오면 명가원 사람들 모두가 일년 동안 쓸 이른 봄의 솔잎과 늦은 봄의 송순을 따온다. 이후 소나무 특유의 떫은맛을 없애기 위해 한번 찌내는 과정을 거친다.



술송주는 2019년도 대통령 선물세트로 선정되어 널리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전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 2008년 람사르총회 공식 건배주, 2014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우리술 약주 청주부문 대상, 2015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약주 청주부문 대상 등을 차지한 바 있는 전통 약주다.

문헌의 송순주를 복원한 맑은 약주 술송주는 술잔에 풍기는 술향이 그윽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다. 담술은 은은한 술향에 이어 40도가 무색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넘김에 이어 증류주 특유의 사나운 기운이 돌아 나가지만 의외로 깔끔한 끝맛이다.

주조법은 보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멥쌀로 고두밥을 찌서 누룩과 섞어 밀술을 만들고, 사흘 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함양산 솔잎과 송순을 살짝 찌서 고두밥과 함께 밀술에 섞는 덧술 작업을 하는 이양주다. 본래 전통 방식은 밀술을 찹쌀죽으로 만드는데, 대량 생산을 시작하며 깔끔한 맛과 안정적인 재료수급을 위해 멥쌀 고두밥으로 바꿨다. 쌀은 함양에서 난 햅쌀만 쓴다. 덧술한 뒤엔 상온에서 사흘, 저온에서 3주가량 발효를 거친다. 여과한 맑은 술을 저온창고에서 2주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된다.

그밖에 녹파주(15도), 복분자주(16도), 머루주도 판매하는데 의외로 찾는 사람이 많다. 술송주문화관에서는 증류주 내리기, 증류주 칵테일 만들기 체험(30분, 30,000원/인)도 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mgwkorea.com)나 전화, 이메일 solsongju@naver.com로 예약한다.



술송주 문화관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지곡창촌길 전 화 : 055)963-8992

The Father

더 파더



2021년 4월 7일 개봉 영화로 ‘양들의 침묵’으로 유명한 배우 앤서니 홉킨스 열연이 돋보이는 영국 영화이다. 런던 거주 주인공 안소니에게 딸 앤이 어느 날 새로운 간병인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안소니는 치매를 앓는 노인으로 나오는데 그는 시계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 불안할 때마다 손목시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누군가 시계를 훔쳐 갔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시계는 자신이 화장실에 항상 고이 숨겨둔 장소에 있다. 그렇게 소중한 시계의 행방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시간의 흐름은 뒤죽박죽이다. 어느 날 딸은 프랑스 사람과 결혼하여 프랑스로 이사가야 한다며 그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이를 깨달은 안소니는 자기 집을 떠나는 것에 아주 불안함을 느낀다. 그 일이 충격이었는지 유일한 방문자 딸의 모습까지 헛갈리기 시작한다. 안소니는 죽은 둘째 딸 로라에 관해 이야기한다. 로라가 자주 만나러 오진 않지만 살아있다 생각하고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러 와 주기 원한다. 로라와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리워 하는 안소니 표정에서 더욱 슬픔이 묻어난다.

마지막 안소니는 결국 요양원에 있는 자신을 자각하고 돌보는 간호사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며 뒤죽박죽 된 시

간의 흐름, 소중한 사람, 자신의 아파트가 요양원으로 변하는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를 참 좋아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최근 몇 년간 영화관을 찾지 못했다. 이번에는 영화를 유료로 다운로드 받아 핸드폰으로 시간을 내어 보았다. 이 영화 또한 유튜브 추천으로 보게 되었는데, 앤서니 홉킨스의 열연을 본다는 기대를 안고 구매하였다. 영화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몰입감을 선사해 주었다.

이제 나에겐 딸이 한 명 생겼고 퇴직 앞둔 아버지도 계신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니 아버지가 만약 치매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버지 심정은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외롭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반대로 내가 치매라면 어떤 느낌이고 나의 자식에게는 어떠한 곤란함을 줄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극중 주인공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간병하는 주변인 중에는 안소니가 앤을 대하는 태도 및 힘들에 관해 어려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또 다른 씁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사람들 심정도 이해 가는 부분이기에 그들 잘못이라 감히 말할 수는 없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자신이 알고 지냈던 것들이 하나씩 흩어지는 기분이란 상상만으로도 혼란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슬펐다. 서로 다른 세대를 모두 이해하고 통합해 나갈 수는 없겠지만 공감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 [E&C](#)

신의 축제, 발리 네피

— 불 끄고 별 켜진 날, 지구 엄마를 만난다 —

발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지이지만 비밀스런 의례가 가득한 신의 나라이기도 하다. 세상의 마지막 낙원이라고 기치를 내걸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 수입으로 살아가는 발리는 어쩌면 신이 보호하는 진정한 왕국인지도 모른다.

일상대소사가 모두 신을 향해 나아가는 의례요 먹고 자는 것도 신에게 바치는 기도가 되는 이 지구상의 몇 안 되는 땅이다. 발리인들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19세기가 되면서 유럽의 나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그중 네덜란드가 발리를 침략했다. 1846년 발리 동쪽을 먼저 침범하여 지역의 왕가들을 무력으로 점령한 뒤 발리 전체를 향한 침공을 멈추지 않았다.

1908년에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왕국이었던 쿨롱쿵왕국을 멸망시키고 발리는 완전히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일은 타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는 것이 그 당시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네덜란드는 국제적으로 맹비난을 받았다. 쿨롱쿵왕국의 왕가를 비롯한 모든 귀족들이 모두 자결을 함으로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네덜란드는 잔인한 살육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화 정책을 내놓았는데 발리에서 지켜 오던 모든 전통과 의례를 보전하고,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렇게 식민정부가 무간섭주의로 나갔으나 왕가를 잃고 식민지가 된 땅에서 많은 부족들은 의기소침하고 무력해지면서 지키던 많은 것들을 소홀히하고 게을리 했다.

그런데 1917년 발리 남부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서 수 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때 해독감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연이어 다음 해엔 생쥐들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곡물을 해치워 버렸다. 이런 재해가 계속 일어나자 발리인들은 다시 신을 찾기 시작했으며 옛부터 지키던 전통을 모두 재현시켜 지켜 나갔다. 발리에 생긴 모든 재앙들을 신의 진노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신의 앞에 모두 내어 놓으면서 발리는 신비롭고도 기이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수없이 많은 신당에 매일 꽃과 음식을 바치며 여인들이 공물을 머리에 이고 신께 나아가는 모습들은 특히 유럽인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과장되어 알려진 것들도 많으나 서양인들은 발리에 매혹되었고 발리 특유의 정신적인 무언가에 열광했다.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의례인 바론의 행진이나 상향드다리 등이 있으나 발리에서 가장 엄격하고 비의속에 지켜지는 또 하나의 의례가 있다. 바로 네피라는 의식이다.

발리 달력으로 정월 초 하루가 되는 날에 이 의례를 하는데 불, 일, 이동, 금식이 네피의 메세지이다. 신들을 위해 어떤 불도 켜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며, 집 밖에도 나가지 않으며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 네 가지 메세지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불을 밝혀 밤을 쉬게 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지구의 불편을 더하게 한다. 밤낮없이 움직이고 나가서, 지구의 피부는 인간의 발걸음으로 어지럽고 쉼 없이 먹어대어 자원을 고갈시키며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발리인들의 신들의 모태는 바로 지구이며 그들에게 어머니인 대지이다. 그 대지를 하루 내내 쉬게 하고 어머니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네피의 진정한 목적이다. 실제 그 날 밤에 발리의 모든 곳에서 불이 꺼져 완벽한 암흑이 된다고 한다. 인공 불빛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별들이 완벽한 암흑속에 쏟아지는 듯한 빛을 발하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간이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멈춤으로 어머니인 지구를 쉬게 하는 것이 네피 의식의 주목적이다. 내가 발리에 가는 날은 이 네피를 만나기 위해서일 것이다.

내가 지구를 위해 인간들을 멈추게 할 수 없으니, 이 지구상에 지구를 쉬게 하는 의례가 있는 발리에 가련다. 그들과 함께 불도 켜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며 밖에 나가지도 않고 굶으면서 기도만 하련다. 그런 기도가 지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기도가 어쩌면 진정으로 지구의 멸망을 늦추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모태인 이 지구는 엄마가 하나이듯이 단 하나 뿐이다. 우리 모두의 생에서는 말이다. **E&C**

영원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이집트 컬렉션 회랑을 몇 시간 걸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뺀 유물을 모두 여기에 가져다 놓은 듯, 어떤 전시실에는 작은 신전(神殿)의

돌 하나 남김없이 가져와 그대로 사원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마치 피라미드 내부의 어두운 미로를

걷는 듯한 착각 속에서 무엇보다 미라를 담아두었던 무수한 목관과 석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관과 석관의 두께와 크기도 다양하고 그 위에 새겨진 인물의 얼굴도 제각각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의 발길이 멈춘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연인, 어떤 부부, 아니 어떤 자매 같이도

보이는 한쌍의 남녀 미라가 유리관 너머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목관 위에 새겨진 얼굴과

어깨와 몸과 옷의 정교한 색칠과 양식을 한참 바라보다, 미라의 얼굴이, 그 어느 날 보았던 당

신의 눈매, 코, 입술.....

그 어딘가. 그 어떤 모양을 닮은 것 같아 한참을 바라 보았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여기는 뉴욕 맨하탄의 5번로 85가(Fifty Avenue 85th Street).

메트로폴리탄 미술박물관의 일층. 오전 열시 시각.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목관 들 중 하나가 당신을 닮은 것 같아. 왜 불현듯 당신 얼굴이 그 목관 위로

겹쳐 떠올랐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다정스럽게 누워 손을 잡고 있는 듯한 한 쌍의 미라 목관은

어떤 연인, 어떤 부부, 어떤 남매.....였는지 나역시 몰랐지만요. 그 순간 만큼은요. 나와 당신이

저 유리관 속을 걸어 들어가 함께 눕고요. 저 유리관 속의 이집트 남녀는 여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옆

센트럴 파크를 우리 대신 지금 걸어가게 하고 싶었지요.

까만 빛은 당신 손에, 나는 당신의 초록빛 돌구슬 목걸이를 내 가슴에 꼭 안고서요.

저렇게 나란히, 저렇게 다정히..... 그리고 또 영원히. **E&C**

방아

집 사이 작은 텃밭이나 옥상 스티로폴 상자나, 작은 화분에 심겨진 작은 깨잎처럼 생긴 잎새에

연 보라빛 꽃이 희미하게 피어난 풀을 한 잎 뜯어내어 손으로 비벼 냄새를 맡아보면 방아잎 향내가 그득하다.

방아는 비릿내와 역한 냄새를 중화시키는 허브로 남도 사람은 찌개, 매운탕, 파전 같은 음식에 넣어 먹는 잎새이다.

서양 바질을 조금 닮았다. 방아 풀은 부산, 진주, 하동, 밀양을 벗어나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몇년 전 손수 방아 씨앗을 가져다 꽃밭과 아파트 화단에 심었는데 여기 복讎 기후에 맞지 않았서인지

중간 키 정도쯤 자라다 그만 말라 시들어 버렸다. 외할머니는 하동 악양 사람이라 김치에 제피 같은 것을 넣어 담구셨다.

정체불명의 향이 김치에 스며들어 길들여 지지 않는 혀는 깜짝 놀랐다.

엄마가 아픈 동안 초등학교 2학년 나는 시골 외가에 맡겨졌다. 아니 그때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참 외로운 시간이었다.

정작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땅에 묻혀 세월이한참 지나고서야 할머니가 남겨준 그 독특한 방향이 문득문득 몸과 혀로

아로새긴 지문처럼 남아 오래 동안 배회하는것을 느꼈다. 할머니라는 존재는 사라졌는데 할머니가 남겨준 미각만이 남았다.

타관살이 삼십 여년. 밤마다 꿈을 꾸면 할머니와 살았던 시골집으로 다시 돌아가

마당에 있던 누렁 개, 작은 우물과 물펌프, 채송화를 본다. 바람 부는 날 밤이면

뒤란 대나무 서걱거리는 소리에 무서워 했던 날들을 떠올린다.

옛집과 거기 살던 사람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인데도,

사람의 기억이란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꿈결처럼 아득해지고, 꿈길 사이로,

꿈의 언저리에서, 방아잎 향내가 입 안과 코 끝에 싸악하게 스며든다.

그 감각의 기억이 몸과 마음을 때로는 강렬히, 사무치게 흔들어댄다.

그리고 조용히 불러본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E&C**

농민 보험금 찾는 앱 바로 청구

가입만 해두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이 보험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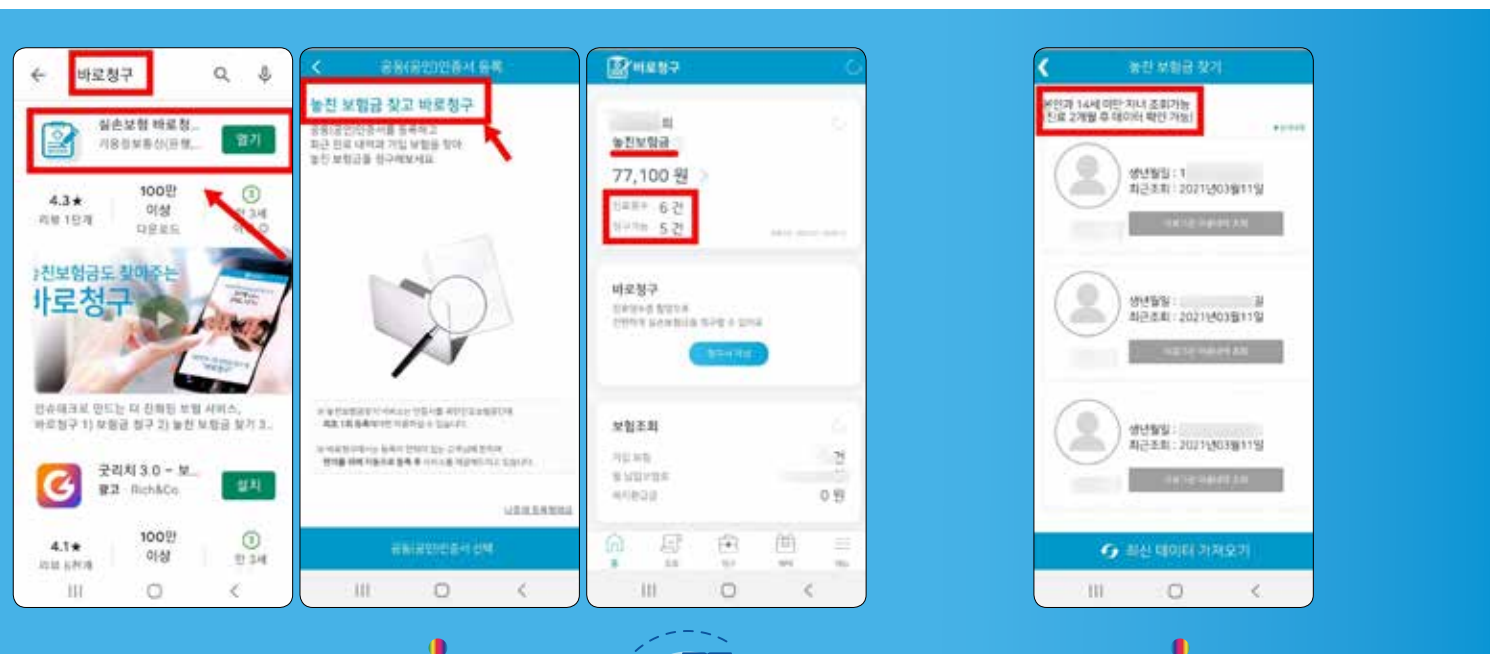
특히 스마트폰과 친하지 않는 부모님 세대 혹은 신청할 수 없는 14세 미만의 경우에 챙기기가 어려운데요.

보험료 청구하는 통합 앱이 그런 분들께 유용하여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가 한번에 가능하며

내가 가입한 보험 및 내 자녀의 진료 기록과 지금껏 받지 못했던 보험료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어플들이

많아서 꼭 이 어플이 아니더라도 이용하셔서 보장받는 보험에서 누락된 보험금이 없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 이름은

‘바로 청구’입니다. 공인인증서 필요로 하며 1번 인증 후 에는 최근 진료 내역과 청구 가능 보험료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1

공동(공인)인증서 등록해주시고
농민 보험금은 청구 가능하며,
바로 청구 기능을 통해서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과 14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니
아이의 보험금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

진료 날짜와 본인부담금,
청구가능금액이 나오고
청구하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기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에 대하여 청구
기록을 남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사와 청구인/피보험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내역 작성 후
진단서/혹은 입증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 해주시면
팩스/이메일로 전송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관련 서류는 보험사마다
상이하여 보험사의 약관 혹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소액의 경우에는 이메일/웹서비스 지원하고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보험사마다 상이) 큰 금액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한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완료 시 해당진행사항은 카톡으로
메시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나의 보험 보장 상태를 점검하는
메뉴도 있어 과보장 되거나 부족 보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

독자와의 수다 사보 뒷풀이

세상 살다 보니 이해 가지 않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실체 없다는 암호화폐도 그렇고 가상부동산을 매매하는 어쓰2(Earth2)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쓰2는 메타버스 형태로 지구를 가상세계로 옮겨 땅에 투자하는데 강남과 해운대 소유자가 누군지 궁금해집니다. 본래 디지털은 원본과 복사본이 100% 일치합니다. 파일을 복사하여 옮기면 한 치 오차 없는 바이트 수치를 보여줍니다. 무명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의 디지털 그림이 '진짜'라는 낙인을 찍고 경매에서 780억에 팔렸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는 '이것이 오리지널 진품이다'라는 일종의 디지털 도장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복사본과 다르지는 않겠지요.

값비싼 스위스 시계 모조품이 범람하는데도 정작 시계 메이커는 모른 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은 가짜가 쏟아질수록 진짜를 애타게 찾기 때문이라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것"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자 욕망입니다. 요즘 잘나가는 사업과 기술은 대개 보증분야입니다. 그걸 NFT, 블록체인, 다큐싸인(진본임을 인증하는 회사 이름) 등으로 부릅니다. 거기에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라고 인정한 순간부터 "뭇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가는 조각배"가 됩니다.



원고모집

최재봉 교수의 4차산업혁명 사보연재가 종료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에 관한 이야기를 투고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분 야 : 과학과 기술(Sci-Tech) ▶ 원고 분량 : A4, 2면

살다보면 자신만의 체험이나 생각이 문득 들어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키오스크 주문대 앞에서 누구나 당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프로그램 구성, 먹통현상이 빈번하지요, 시각장애자는 밥 사먹기도 꽤 힘듭니다. 이와 같이 시사에 얽힌 진솔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분 야 : 시사 ▶ 원고분량 : A4, 2면

롤랑 바르트는 카메라 루시다에서 사진예술과 미학은 존재증명 기록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오래된 사진첩 속에 시간이 정지된 채 남아있는 사람, 풍경, 사물은 자신만의 애뜻한 존재 기억들입니다. 가족사진, 소풍, 동창생과 여행, 시장과 골목 등 빛바랜 흑백사진이나 아그파 칼라필름 색조가 담긴 사진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분 야 : 디지털 사진 2~5매, 짧은 사진 설명 ▶ 마 감 : 8월 10일까지

독자의견도 7월 30일까지 memolee7@kepc0-enc.com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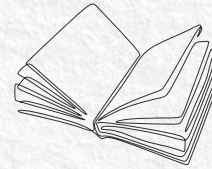
◆ 이달의 한컷! : 커피쿠폰 1만원

- 유종구 (토건환경기술실 과장)
- 박호수 (보안기획팀 부장)
- 김형석 (사업관리기술실 부장)
- 문영태 (원자력기술실 부장)
- 허선경 (에너지신사업처 사원)

◆ 독자의견 :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

- 황병호 (사외독자)
- 강영숙 (사외독자)
- 김은미 (사외독자)
- 이정숙 (사외독자)
- 이지선 (사외독자)

지난호 사보를 읽고(독자의견)



• 원자로설계개발단 설계점검팀편을 감동깊게 읽었습니다. 공기업은 좀 딱딱하지 않은가 하는데 한국전력기술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네요. 팀원모두 밝고 아름다운 미소가 돋보이고 가족, 친구같이 단단한 팀워크 업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니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사원부터 부장님까지 따뜻한 포옹과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하시는 모습에서 또 다른 에너지를 보는것같아 마음이 든든해지고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쉬운점은 사내소식이 많아 고객 및 독자들이 읽기에 조금 난해하네요. (황병호 사외독자)

• 한국전력기술을 23년째 근무하고 있는 남편 덕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보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어떤 풍성한 글들이 올라왔을까 설레임으로 열어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제 시선을 끄는 것은 역시 KEPCO E&C NEWS 인데요, 한전기술의 여러가지 변화와 성장들을 엿볼 수 있어 좋습니다. 저는 와인을 좋아합니다. '술익는 마을' 코너 유기농 산머루 와인을 만드는 수도산 와이너리를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달지 않은 드라이한 와인을 좋아하는데 김천에 가면 남편과 꼭 한번 방문해서 맛보고 구입하고 싶습니다. (유은혜 사외독자)



• 가족끼리 스페인 가우디 건축물을 보자고 약속한 터라 눈에 띈 스페인, 돈키호테 그리고 가우디' 기사와 사진 덕분에 꿈틀꿈틀 용기가 샘솟네요. 스페인의 이국적 건축물을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다시 해외에 갈 수 있겠지요. 가족들과 마스크 벗고 스페인 풍경속으로 마구 달려가고 싶습니다. (강영숙 사외독자)

• 코로나19로 집콕이 일상화되다 보니 '맛집탐방, 지역탐방' 코너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금은 잠시 떠났지만 제 고향 '대구의 갈비찜 맛집' 거승은 대구 방문 때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사진과 글을 통해 생생히 맛이 느껴졌습니다. 지역탐방 코너 덕분에 김천시립박물관으로 랜선 투어를 떠나볼 수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이를 해설 삼아 여행을 떠나봐야겠습니다. (김은미 사외독자)



• '이달의 한기인' 혁신경영팀 남군우 부장의 인터뷰가 가장 좋았습니다. 업무 초창기 때의 어려움을 아낌형 인간으로서 극복한 점과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추는 소통능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배려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돌아온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남 부장처럼 자신의 말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범이 되는 한기인들을 계속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정숙 사외독자)

• 'Shall We Meet?' KEB하나은행 김자영 대리의 이야기를 잘 읽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사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분야에 시제 맞추기는 좋었지만 제출서류가 자주 바뀌어 난처한 상황에 접할 때가 많아요ㅠㅠ. 넷플릭스에서 삼생삼세 십리도화 영화를 꼭 찾아 보아야 겠어요. 집에서 자녀도 돌보는 커리어 우먼의 삶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직업이 나올까 궁금해지네요. (이지선 사외독자)